



동우컴퓨터

신비주의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신비주의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목사다.

신비(神祕)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기하고 묘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가 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아닌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난 일,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가 뒤로 물러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 신비를 믿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시는 기이한 일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니, 어찌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는가. 나는 신비가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으련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 신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계속 행하셨고, 그 신비한 일은 지금도 성령을 받은 모든 자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작은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비구름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적을 보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천국이 있음도, 천국에 가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나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
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4).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보유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 오피스텔, 소형차, 반려동물을 갖추고 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이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사이의 소통은 줄어들고, 기존의 윤리 관념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보다 동물이 우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세상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질타하셨다.

다. 기가 차고 코가 찡 일 아닙니까? 반려 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 한의 도리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보다 동물이 앞섭니까? 더구나 부모 보다? 조카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할 짓입니다. 난 젊은이들이 내 말이 듣기 싫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며 키워준 부모를 업신여기고, 현대판 고려장으로 늙고 힘없는 부모를

만이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인디언 사회에는 인디언 부족법이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법 위에 인디언 부족법이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중죄를 범하면 족장의 명령에 따라 공중 앞에서 매질을 하고 멍석에 맡아 불태워버린다고 하네요. 이런 처결에 과테말라 정부도 어찌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일 정부나 지역경찰이 간섭했다가는 인디언 사회의 엄청난 저항과 소요를 각오해야 할 정도랍니다. 이로 인해 알몸



과테말라 알몰롱가 집회 광경

“상담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완전을 키우고 있는 동생 집에 애들을 데리고 방문했는데, 아마도 대소변을 못 가리는 어린 조카가 거실에서 일을 본 모양입니다. 그러자 동생이 난리를 치더랍니다. 더럽게 아무데서 그런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건, 키우는 애완견에게는 ‘아유, 우리 새끼, 쉬했어?’ 하며 얼려주더랍니다. 기가 막힌 언니가 후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디 어린 조카뿐이었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자식 놈이 며느리와 함께 애완견을 얼마나 아끼는지 부모에겐 그리 인색하게 굴면서 애완견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애완물품을 사 나르고 먹을 것을 이것저것 사다 먹이더라고요. 화가 난 아버지가 하루는 자식 놈 퇴근할 때 맞춰서 개집에 들어가 있었습니

버리질 않나,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 말종들이 있으니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아니 짐승만도 못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가족을 지키려 맹수와도 싸우고, 주인을 지키려 목숨을 던지는 충견들의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갔을 때 일입니다. 수도 과테말라시티 집회를 마치고 시골마을인 알몰롱가에 갔는데,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과 상인 및 주민대표들이 상가를 철시하고 나와 대대적인 환영퍼레이드를 펼치며 저와 우리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하고, 세미나 및 집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알몰롱가 집회를 배설한 마리아노 목사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몰롱가 시의 족장역할까지 하는 그 지역사회에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과테말라는 인구 1,400만 중 약 900

통가에는 아예 교도소가 없다고 합니다. 형벌 자체가 워낙 무섭다보니 누가 감히 죄를 범할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도덕,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작금의 이러한 현실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풍조를 따르지 말고, 제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 (20% 대면예배, 백신접종자는 제한인원에 상관없이 참석가능)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하23:39)

길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돈이 급할 때 이유 불문하고 돈을 꾸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가족을 맡길만한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없다면 친구와 이웃을 원망하기에 앞서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यो, 사람이 능력ियो, 사람이 자산ियो,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사람은 내가 날아갈 수 없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비행기요, 날개이며, 건널 수 없는 곳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맥은 금맥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길과 돈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잠18:19)는 말씀처럼, 한 번 닫힌 마음을 열기는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자인지라 거기에서 정의의 318명 용사들을 얻었습니다(창14).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헛 속에게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아내를 장사하라."(창23:6)고 할 정도로 인맥을 잘 갖춘 자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

인맥은 금맥이다
사람 관리 잘해라

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도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군이 있는 곳에 가서 우물물을 떠왔을 정도입니다(삼하23:14~17).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이방인 중에서도 요셉을 중용한 애굽 왕 바로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

고를 교육시켜 등용한 느브갓네살 왕, 그들은 사람을 얻음으로 국가를 융성케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38절 말씀을 부여잡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일 잘하는 타교회의 조장, 구역장들이 몰려와 그들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하나만 얻었어도 그로 인해 엄청난 인맥을 쌓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신이 유방에게 “

저는 백만 대군을 움직이는 자이오나 왕께서는 백만 대군을 움직이는 자를 좌지우지하는 분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사울이 지혜로운 자였더라면 만만의 칭호를 받은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을 얻고 힘을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아비 대의 중신들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을 중용하더니 나라가 두 동강 나고, 할아버지, 아비 대에 주변국들의 존경과 조공을 받던 시온의 영광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 같은 나이의 제갈량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 번씩이나 자존심을 무릅쓰고 찾아가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얻었기에 삼국통일의 대업을 도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를 얻고, 70인의 제자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얻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을 얻으려면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인제는 인정을 해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지만, 무시하면 가차 없이 등을 돌립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내가 형성해가는 것이니까요. 꿀을 얻겠다면서 꿀통을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벌이 쏜다고 벌집을 건어차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꿀도 못 얻고, 그 벌들이 달려들어 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면 두 말

할 것 없이 이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나 잘났네.'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진 곳에 물이 고이고, 고기가 몰리듯 낮아지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사, 사, 사가 많은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하고 존경받는 것은 봉사(奉仕)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 봉사 정신이 있는 자에게 사람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벌과 지식, 문벌의 자랑거리를 제하셔서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낮아져 섬겼더니 루디아 및 브리스길라와 아

굴라 같은 자를 얻어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자기에 있음을 감사하지 않습니까(롬16:3~4). 사실 저도 저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 대신 죽어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낮아져 그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단에서야 말씀을 단호히 전하지만, 단에서 내려오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낮은 골짜기로
물이 모인다

또한 사람을 얻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義理)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의 계계를 알려주어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그 후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드비보셋을 찾아 궁에서 살게 했고 그와 겸상을 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70년대 전국적으로 시멘트 파동이 났을 때, 대부분의 판매상들이 때는 이 때다 싶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먼저 시멘트를 공급해주었습니다. 단골이고 뭐고 없었지요. 그러나 저는 단골에게 먼저 시멘트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얹어 줄 테니 달라'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잘라 말하고, 그동안 우리 영업소와 연을 맺은 자들에게 시멘트를 공급했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보고 일하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얻기 위해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점차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다른 판매장을 찾던 사람들도 '의리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겠다.'며 저의 영업소만 찾게 되고,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슴에 품으니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내면지면, 쓸모없다고 토사구팽하면 그것이 언젠가 뱀이 되어 나를 물지만, 품으면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뱀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소인배는 인연이 인연인지 모르나, 군자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기에 그것을 사다리 삼아 오릅니다. 정보나 지식, 행복과 성공과 믿음도 인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람을 잃지 말고, 인맥형성에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미련한 것 같으나

숨이 멈추는 날 남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 축복을 얻을 때까지 방법도 선하라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바라본다. 바라보니 능히 이길 것 같아 대군을 몰고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놀라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천사는 어떻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해준다. 하루에 한 번씩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을 여섯 동안 돌고, 제칠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다가 나팔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젓과 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었다. 우리 속담에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목적만 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도 하나님이 주실 터이니 물으라

는 것이다.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히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어떨 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 “너는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최저수단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사막에서 신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준 것같이 목적과 함께 방법도 거룩하라는 것이다.

민수기 22장에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솔깃해져 따라가는 발람을 칼을 빼든 주의 사자가 막아선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1절에 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잘못된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그려진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칼을 빼실 것이다. 이것만 지나면 성공하겠는데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거룩하라, 순전하라, 성령을 거역치 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신기류 목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책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그러나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 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 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

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에게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리자 그 청년의사는 차트를 찾아 그 어린 환자가 사는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 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과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stigma)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깊이 생각해볼 이야기입니다.

:: 목사님께 온 편지 ::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저는 문경연 집사 안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께서 예배시간에 문경연 집사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또 교회 신문에 간증이 나간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시간 내내 평평 울었습니다. 저도 그 떨진대 멀리 망망대해 남태평양 선상에서 험한 파도와 싸우며 참치잡이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 집사는 어쩔는지 상상

이 갑니다. 항상 자신을 미물만도 못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는 문 집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자신이 간증 되었으니.... 아마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문경연 집사의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 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남편 문경연 집사는 좀 남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보통 두세 시간 기도하고,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별명이 문 목사였을까요.

문 집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목이 부러지도록 온몸을 움직이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너무 미친 듯이 기도해서 교회에서도 눈치를 봐야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려면 개척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인 제가 봐도 지나치다 싶

을 정도였으니까요. 차라리 주의 종 길을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몇 달씩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문 집사가 남편이지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합니다.

목사님! 문 집사는요,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우선이지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께 반 미친 사람입니다. 어찌면 가족보다 더 목사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문 집사를 보면서 이초석 목사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순간순간 갖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스처, 말하는 거, 모두가요.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내인 저조차도 예수님께, 이초석 목사님께 너무 미쳐있는 문 집사가 한 번씩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어

릴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목사님을 알게 되고, 함께 살아와서 문 집사를 이해하고 사는 거 같았거든요.

문 집사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초석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손해라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건강하셔야 한다면서 목사님 위해 일평생 기도하는 문 집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문 집사가 평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도 감사하고, 그런 남편이고 아빠이기에 오랜 기간 객지 생활을 해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을 닮고 싶어 하고, 목사님의 능력과 능력에 미치고자 하는 문 집사에게 수요일에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을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문경연 집사 아내 차은화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태평양 한가운에서



제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은 헬리콥터를 탑재하여 참치 떼를 찾아다니고, 고성능 어탐기를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참치 떼를 찾아내고, 최신형 레이더로 새떼들을 찾아다니며 높은 망루에서 대형 쌍안경으로 참치 떼를 찾아 투망하여 어획을 한답니다.

기억이 아련한데 2002년 어느 날, 우린 TRUCK이라는 섬으로 운반선에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습니다. 순간 “우리 배가 저런 사고를 당할 처지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승선한 배는 1,000톤급 참치잡이 대형 선망선이었는데, 우리 배보다 훨씬 큰 배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180도로 뒤집힌 채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태풍이 얼마나 크고 강하였기에 부두에 정박하여 동아줄로 안전하게 묶어놓은 선박이 거꾸로 뒤집혔을까’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하역 종료 후 당시 참치 선망선 전진기지였던 콰에 그물과 엔진 수리, 그리고 약 6개월 만에 가족들과 만났다는 부푼 마음으로 입항하였는데, 콰에서도 태풍이 얼마나 강하던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 육상에 만들어놓은 몇 백 톤 정도 될 것 같은 저장 탱크에 불이 붙어서 탄 흔적이 목격되었고, 야자나무 잎사귀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려서 황량하였으며, 정전으로 인해 도시는 유령 도시처럼 캄캄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지인들에게 말을 들으니 차가 강풍에 날아가고, 호텔 유리창이 부서지고, 작은 어선들 여러 척이 전복되는 등, 콰 100년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강력한 태풍이 있기 이를 전, 저는 당시 제가 승선한 선박의 메인 엔진이 고장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엔진들이 고장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총책임자인 내가, 그것도 주기관 고장으로 선박이 동력을 상실하고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생겼고, 회사에서 책임추궁과 해난 심판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었기에 억지로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 선박은 이틀을 운반선에 예인되어 POHNPEI라는 섬에 입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항 다음날 그 태풍이 POHNPEI섬에 상륙한 것입니다. 다행히 섬 항구는 산호로 둘러싸여 있고 수로가 좁아서 선박들이 겨우 입출항할 만큼 작은 항구였으며, 몇 백 미터 앞에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어 태풍이 온다고 예보는 들었지만 강한 비탄 며칠 뿌리고 지나갈 줄 알았지 그렇게 크고 엄청난 태풍일지 몰랐습니다. 태풍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만 늦게 입항했어도 주기관이 고장 나 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태풍 속에서 아찔하고도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텐데 적기에 최고로 안전한 항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시 나의 어머니 문여님 권사님은 소식을 들으시고 밤이 새도록 나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엔진은 안전하게 수리되었고 회사의 책임 추궁도, 해난 심판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때는 총회장 목사님 비디오테이프를 사서 선박에 싣고 다니면서 은혜 받고 다닐 때였습니다. 1992년인가, 부산 구덕체육관 집회 때 총회장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집회 첫날 구덕체육관에 성도님들이 가득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 되어 못 오실 상황인데, 김포공항에서 기도하시다가 비행기 한 대가 풀려서 오고 계시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안내방송 후 간절히 얼마간을 기도하고 있던 중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목사님이 단에 올라와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가 뉘기에 태풍을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 집회 기간 동안에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풍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서 진짜 우리는 태풍이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날은 안수를 안 하시고, 둘째 날부터 안수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며 체육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고 계셔서 제가 1미터 거리를 두고 목사님을 따라 다녔었는데요. 어떤 암 환자 가족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안절부절못하는 걸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안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환부에 손을 얹고 두루두루두루 방언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암 환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어 머리가

다 빠진 환자와 가족들이 단에서 찬송하며 춤을 췄습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 1탄에 그 환자가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가 끝난 후 환자들을 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시는데 어찌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지 여러 명의 병어리와 귀먹은 아이들이 줄줄이 귀가 뚫리고 말을 하며 암 환자가 치료되는 등,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들이 나타나서 낮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꼭 가보고 싶었던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설교 마친 후 아픈 사람들 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총회장 목사님이 나를 보시더니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고 명령하시며 안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내 자리로 와서 앉은 순간 갑자기 약 5분 정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악한 것들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안수하시면 발작을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귀신과 질병이 떠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때는 하루 세 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점심 먹고 기도 동산에 올라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세 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난 후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몇 시간 기도하고, 밤 예배 끝나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이제는 잠을 자려고 하면 또 새벽예배 드린다고 “주여, 주여~” 통성 기도 하셔서... 그때는 대성전에서도 잠을 잘 때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할 수 없이 잤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영성훈련하고 하산할 때면 육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는 안 온다’고 해놓고선 집회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은혜의 동산 예루살렘기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지혜가 “아빠, 나 자궁에 혹이 있대요.”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아빠 기도 끝날 무렵 와서 기도 받아라.”고 권했습니다. 밤 12시경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던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며 손을 얹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이 떨어질지어다!” 소리치면 지혜의 “아멘!” 하는 소리가 내 기도 소리보다 컸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5일 동안 밤마다 기도하다가 나는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혜가 몸이 안 좋아서 혹이나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혹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시 딸 아이 신앙생활이 그리 열심히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아멘’ 소리 크게 하다가 수지맞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 받으실 때 무조건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제 경험상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딸 온유가 몸이 안 좋는데 서울에 직장 있어서 명절 때만 내려오니까 그때 만이라도 기도해주고 싶어서 밤 12시 무렵 기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유가 와서 내 뒤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더니 갑자기 기도 소리가 똑 그치는 겁니다. 기도 마친 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온유가 “아빠, 아까는 참 이상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면서 기도를 똑 그쳤어요.”라고 말해서 “그러면 우리 다시 기도하자.” 하고는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하기 시작하는데 하도 발악을 해서 누구냐고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나에게도 총회장 목사님의 은사가 조금 전수됐나 봅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와 고통을 호소하던니 눈이 뒤집힌 채 고개가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수십 번을 명령했는데도 차도가 없자 괜히 믿음이 있는 체 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도 들었는데 가다가 구급차 안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땀에 흠뻑 젖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지치고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집사람 턱을 내 머리로 받쳐 들면서 방언으로 얼마를 기도하였더니 집사람 눈이 희미하게 떠지더니 비틀비틀한 상태로 겨우 침대로 가서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고, 자고 나니 깨끗해졌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해서 겨우 한 생명 소생시켜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상에 있으면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워 영적으로 헤이해지기 쉬운데, 목포 예수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USB에 총회장 목사님 설교와 이시대 목사님 설교를 복사해서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선박에 인터넷이 개통되고 카톡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방송 예배 중계실황을 연결하니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세상에 태평양 한가운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생방송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이야... 가끔은 기상악화로 약간씩 끊기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고 은혜 중 은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헤이해지고, 낙심될 때, 여전히 날카롭게 들려오는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 소리와 열정을 다하시는 찬송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설교가 태평양 한가운에서도 생방송 되어져서 나를 깨우고, 채찍질하고,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태평양에서 참치잡이 선원 문경연 집사